2016년 광주 온실가스 배출량 925만t

국제기후환경센터 '2018 온실가스보고서' 발간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 2013년 이후 완화 추세

지난 2016년 광주지역 온실가스 총 배출량이 925만2000t으로 지난 2010년에 비해 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국제기후환경센터는 8일 2016년 광주시 온실가스 배출량을 분석한 '2018 광주시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광주지역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925만2000t으로 지난 2010년 884만2000t 대비 4.6% 증가했다. 지난 2015년 921만t과 비교해서는 0.5% 증가한 것으로, 2013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이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보고서는 최근 확정통계가 확보된 2016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결과를 담고 있다.

광주시 온실가스 총배출량 중 에너지부문이 91.5%로 가장 많았다. 세부적으로는 수송부문 33.0%, 상업부문 21.9%, 가정부문 20.9%, 산업부문 20.0%, 공공기타부문 6.3% 등이었다.

총배출량 중 비에너지부문은 8.5%를 차지했으며 세부적으로는 폐기물 62.4%, 산업공정 33.2%, 농업 4.4% 등으로 나타났다.

2016년 광주시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6.21t으로 2015년 대비 0.5% 증가했다. 국가 총배출량 기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13.5t으로 광주는 국가 평균의 46%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광주지역내에 발전소나 중화학, 철강 등 온실가스 다량 배출 시설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지난 2016년 건축물과 교통부문에서 613만t의 온실가스를 배출한 반면, 녹지부문에서 1만5000t의 대기 중 온실가스를 흡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제기후환경센터 임낙평 대표이사는 "이번에 발간된 보고서는 연구 및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서 활용 가치가 크다"며 "지속적으로 온실가스 배출통계를 정밀 분석해 광주시에 온실가스 배출 저감정책을 제안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소방청, 38만개 건물 화재안전 특별조사

소방청은 위험물시설 등 38만2000여 건축물을 대상으로 2단계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2단계 조사 대상은 다중이용시설, 복합건축물, 교육·연구시설, 공장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동주택, 숙박시설, 업무시설, 노유자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 의료시설, 지하가, 종교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관련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수련시설 등이다. 건축·소방·전기·가스분야 전문가와 시민 참여단으로 합동조사반(2755명·798개반)을 구성해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건축, 소방, 전기, 가스, 위험물저장취급시설 등 5개 분야 227개 항목에 대해 조사가 실시된다. 건축물에 대한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는 물론 이용자 특성과 소방관서와의 거리, 소방관서 대응활동 관련 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시설부실이나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행정명령과 시정조치가 동시에 추진된다. 중대위반 사항은 사용중지 등 조치도 시행된다.

소방청은 올해 실시되는 2단계 화재안전특별조사까지 완료하고 1단계 조사결과와 함께 내용을 분석한다. 결과에 따라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안전에 대한 건축물 화재안전정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해 현장대응 활동 정보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금돼지 저금통 선물받은 아이들 2019년 황금돼지해를 맞아 8일 오전 대전 중구청에서 열린 황금돼지 저금통 나눠주기 행사에서 선영어린이집 아이들이 황금돼지 저금통을 들고 있다.

광주소방, 지난해 28분마다 구조 출동

전년 대비 구조건수 증가…7~9월 최다

지난해 광주지역 119구조대원들은 28분마다 한 번꼴로 구조활동에 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광주시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구조출동 실적을 분석한 결과 총출동 건수는 1만8747건에 달했다. 이를 통해 시민이나 동물을 구조한 사례만 3845건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하루 51.36건(지난해 47.31건)으로 28분마다 구조출동에 나선 셈이다.

구조건수는 안전조치가 3841건(전년 2791건), 구조 인원은 승강기 구조가 1776명(전년 165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구조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 구조건수를 살펴보면 대부분 1000~1400건으로 비슷했으나 3분기에는 7월 2105건, 8월 2307건, 9월 1614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동물포획이나 여름철 승강기 구조와 벌집 제거, 안전 조치가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요일별 구조인원은 토요일 682명, 일요일 658명, 화요일 547명 순이고, 시민들의 야외활동이 많은 토요일에 구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사고 종별 구조건수는 1만6251건으로 안전조치 3841건(23.64%), 벌집 제거 2651건(16.31%), 화재 2301건(14.16%), 동물포획 1903건(11.71%), 잠금장치개방 1682건(10.35%), 승강기 1287건(7.92%) 순으로 시민 생활밀착형 구조활동이 많았다.

장소별로는 아파트(33.65%), 도로(12.55%), 단독주택(10.03%) 순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는 광산구(5003건)가 가장 많고, 북구(4770건), 서구(2960건), 남구(1931건), 동구(1586건)가 뒤를 이었다. 동구의 경우 처리건수는 적었으나 인구수(1000명) 대비 처리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김조일 시 소방안전본부장은 "구조활동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구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119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언제, 어디라도 신속히 출동해 시민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남규 기자

비영리법인 대표 사칭 취업 사기 60대 구속

광주 서부경찰서는 8일 복지 비영리법인 대표를 사칭하며 자녀 취업 명목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이모(6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5년 7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친구 소개로 알게 된 A(62·여)씨 등 3명에게 '자녀를 채용하겠다'고 속여 63차례에 걸쳐 1억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외국인근로자 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의 광주지부 대표다. 지부 설립허가를 받으면 정부 지원금으로 고액 연봉을 줄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사무실을 차려 비영리법인 지부 사무실인 것처럼 꾸몄으며, 자녀 3명에게 임금 없이 4~6개월 간 청소 등 허드렛일을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비영리법인은 실제 서울에만 존재했으나 지난 2017년 고용노동부가 설립허가를 직권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영암 교차로서 화물차에 든 맥주 상자 쏟아져

8일 오전 11시4분께 영암군 삼호읍 나불삼거리를 주행하던 A(50)씨의 25t 화물차에서 맥주 상자 200여 개가 편도 3차선 도로로 쏟아졌다.

이 사고로 이 일대 도로가 통제돼 다른 차량들이 주변 도로로 우회했다. 경찰·소방관·동주민센터 직원 40여 명이 2시간30분간 맥주병과 상자를 치웠다.

경찰은 굽은 도로에서 우회전하던 화물차에 든 맥주 상자가 쏠리면서 적재함 덮개가 파손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A씨가 적재물 추락 방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범칙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영암=조대호 기자

'처방에 불만' 병원서 행패 40대 입건

광주 서부경찰서는 8일 병원 처방에 불만을 품고 행패를 부린 혐의(업무방해)로 A(46)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5시40분께 광주 서구 한 병원 진료실에서 의사에게 욕설을 하고 컴퓨터 모니터를 주먹으로 치는 등 30여분 동안 진료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우울증 환자인 A씨는 바뀐 담당의사가 복용하던 약을 바꾼 데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지하철서 흉기로 여성 패딩 찢어

인천의 한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패딩을 칼로 찢고 도주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10시께 인천 지하철을 이용하던 A(21·여)씨는 "누군가에게 칼로 패딩이 찢겼다"며 112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에서 "소래포구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예술회관역으로 이동하던 중 지하철 안에서 누군가가 칼로 패딩을 그은 것 같다"고 진술했다.

최근 A씨가 칼로 찢긴 패딩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자 유사한 피해를 당했다는 피해자들의 댓글이 이어졌다.

오피스텔서 애완견 3마리 떨어져 죽은 채 발견

부산의 한 고층 오피스텔에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애완견 3마리가 죽은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0시 50분께 해운대구의 한 27층짜리 오피스텔 뒷 도로에 갑자기 포메리안 강아지 3마리가 떨어져 죽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자는 경찰에서 "오피스텔 인근을 지나는데 '쿵'하는 소리가 들려 확인해보니 강아지 3마리가 죽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오피스텔 거주자가 애완견을 창 밖으로 던진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 오피스텔 입주민 등을 상대로 탐문조사를 벌이는 등 본격적인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뉴시스